

A-5. 대구치의 근심경사 정도에 따른 치주 상태의 비교 연구

박소영*, 장문택,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목적

여러 원인에 의해 치아가 발거된 후 오랜 기간 동안 그 부위를 수복하지 않으면 무치악 부와 인접한 후방 치아의 근심 경사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중에서 치아의 근심 경사 각도에 따른 치주 조직 파괴 차이를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근심 경사된 치아의 경사 각도 정도가 경한 경우와 심한 경우에 치주 조직 파괴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방법

1999년 1월에서 2001년 8월까지 전북대학교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중 전악 치근단 방사선 사진(평행 촬영)을 촬영한 환자를 조사하였다. 10°이상 경사된 상악과 하악의 대구치를 선택하였다. 근심 경사된 치아들을 경사 각도에 따라 경도(10°이상~30°미만 : group1)와 심도(30°이상 : group2)로 나누어 두 군(group)으로 분류하였다. 임상 검사는 치주낭 깊이, 치태의 유무, 치아의 동요도(mobility)를 측정하였다. 방사선 사진에서는 근심면 골소실의 양, 치아의 근심경사 정도를 측정하였다. 각 군간 비교위해 t-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이번 연구에 포함된 사람은 총 116명이고 연구에 포함된 근심 경사된 치아는 총142개였다. 1군은 59명(여자 26명, 남자33명), 66개 치아를, 2군은 68명(여자 32명, 남자 36명), 76개의 치아를 포함 하였다. 1군과 2군에 중복 포함된 사람도 있었다. 두 군을 비교시 나이, 치주낭 깊이, 치아 동요도, 골소실의 양, 치태 침착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

근심 경사된 치아는 경사 각도가 경한 경우와 심한 경우에서 치주 조직 파괴에 있어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경사 각도가 클수록 더 많은 치주 조직 파괴가 예측된다고 할 수 없겠다.